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이완수** · 손영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재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주제어: 북핵문제, 이념성, 의제구성, 프레임,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1. 문제제기

한국사회에 있어 남북문제만큼 민감한 사안도 없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극단적이고, 전 방위적이며, 대결적인 양상을 보인다. 남북문제는 국민 구성원들 간의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여론 전달자인 언론의 보도조차 이념 지향성에 따라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정서적 영역에 속한다(정재철, 2009). 그 중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돼 왔다(김민웅, 2006). 이 연구는 북한 문제 가운데 특히 국제 사회적 이슈인 핵실험 문제가 국내 언론에 어떻게 조명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구성방식에 주목한다. 북한은 내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국제 사회를 긴장시켜 왔다(Sigal, 2010). 즉 내부체제 불안→경제외교 고립→핵실험→국제사회 긴장 초래→대미 압박→6자 회담 재개라는 일련의 과정은 북한의 대외전략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어 왔다.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이 불리할 경우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안보불안을 야기함으로써 ‘북한 효과’의 극대화를 노려왔다고 볼 수 있다(Dai & Hyun, 2010). 이런 점에서 북핵문제는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정세는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협이슈로 평가되어 왔다.

북핵문제는 지난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로 가시화된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개별적 국내 문제이자, 남북한 체제 간 문제, 그리고 국제 문제라는 다층위적 특성을 보인다(김근식, 2011). 즉 북핵문제는

* 이 논문은 2011년도 동서대학교 교내 특별연구비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조교수(ws895676@yahoo.co.kr)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부교수(yoson@kookmin.ac.kr), 교신저자

남한에서는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 방안으로, 남북한관계에서는 긴장 유발 또는 억제 요인으로, 그리고 국제수준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4대 강대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져 왔다(Dai & Hyun, 2010). 북핵 문제는 남북한을 둘러싼 각 층위별 갈등구조를 관통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북핵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함의가 달라지는 종속변수로 전이되는 중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황지환, 2011).

북한은 2009년 ‘5.25 북한 핵실험(이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장해 왔다. 박길연 전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09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했다.¹⁾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실시로 북한의 핵무장 잠재력이 크게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엄상윤, 2011).²⁾ 국내적으로는 ‘5.25 핵실험’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밀어내고 언론의 즉각적인 조명을 받은 데서도 북핵문제의 무게는 잘 드러난다(고승우, 2009). 북한 핵실험 이슈는 영토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나아가 세계적 단위의 문제로 간주되면서 언론으로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Dai & Hyun, 2010).

북핵문제는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그 파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탈 이념적으로 다뤄져 온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보도는 전통적으로 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 성향이나 정파성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 왔다(이진로, 2003; 이철기, 2005). 북핵문제는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이슈이자, 정파적 이슈로 파악된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의 북핵 보도방식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소유구조에 따른 북핵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성향 연구(선경식, 2004), 신문의 북핵문제 보도에 대한 국가 간 프레임 비교연구(Chung, Lessman, & Fan, 2008), 북한과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 신문 보도 프레임 연구(Baek, 2007), 북핵 위기에 대한 한·미 언론의 프레임 효과 연구(반현·백강희·김수정, 2010),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통신사의 비교 프레임 연구(Dai & Hyun, 2010) 등 그 사례도 적지만, 주로 국가 간 미디어 프레임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이 연구는 국내 신문이 북한 핵실험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수용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의제구성을 알아보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신문이 자신의 이념성향에 따라 ‘5.25 북한 핵실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북핵 이슈가 남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방위적인 정책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조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수행한다. 첫째 국내 신문이

1) 연합뉴스 (2009. 9.30) “박길연, 핵 포기할 수 없다. 강화할 것”

2)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그리고 2차 핵실험은 2009년 5월 25일에 실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09년 5월 25일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2차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은 “함북 풍계리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 지진파를 탐지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09. 5. 26).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전후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압박정책에서 안보와 생존 지원쪽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한겨레, 2011.7.6)

북핵 이슈라는 특정한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조명하는 가치는 의제구성방식에 주목하며, 둘째 신문의 이념적 정향성이나 정파성에 따라 동일한 북핵 이슈를 어떻게 상이하게 다루는가를 개괄해 봄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신문의 이념적 지형을 확인해 보는 데 주목하며, 셋째 북핵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가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또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미디어는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또 어떤 관점으로 보도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정책 결정자 역시 언론의 보도방향에 따라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권태선, 2008).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평면적으로나마 언론의 보도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 문제는 국가 안보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로 입증되어 왔다. 정책 주체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때 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Dai & Hyun, 2010, p. 300),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의 내용이나 방식 역시 다르게 구성된다(김영옥 · 임유진, 2009; 윤호진, 2009; 한동섭 · 임종수, 2001).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 이슈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북핵 문제는 대북관계의 많은 사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이다. 북핵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Lim & Seo, 2009; 이우영, 2003). 이 때문에 핵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가공스러운 공포감을 주는 ‘정서적 위기이슈’로 불린다. 따라서 언론이 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도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한 인식은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전략을 짜는데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언론의 북핵보도 방식→국민의 대북 인식→정부의 대북 정책방향→통일정책 수립 단계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미디어 의제구성 방식은 궁극적으로 대북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1) 언론의 이념성과 북핵문제에 대한 보도

미디어가 표현하는 현실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구성된 현실’이다(Tuchman, 1978; 이우승, 2003).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북핵 문제도 대부분은 언론이 구성한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 핵문제는 개인이 경험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접촉 가능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나 전문가의 의견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는 언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제시되는 이념적 이슈이다. 이철기(2005)는 국내 신문들이 미국의 북핵 관련 보도를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사안의 성격도 자신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이탈적 보도방식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신문의 이런 보도방식에는 이슈의 특성, 한반도 안보 상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는 국내 주요 신문들의 안보상업주의와 사주나 언론사 간부들이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 이유로 꼽기도 한다(선경식, 2004; 이기철, 2005). 북한 핵문제는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와 달리 기자들 사이에 ‘위험 이슈’이자, ‘지구적 안보이슈’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이슈 지각은 북핵문제를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하게 한다(Dai & Hyun, 2009).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동시에 기자 개인의 주관적 신념, 관점, 가치관, 이데올로기, 정치적 성향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Seo, 2009). 류정민(2009)은 보수언론 내부 구성원들의 냉전적 사고는 북한 보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으며, 윤영철(1997)은 북한 문제의 경우 신문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사 보도이념이 상당부분 작용한다고 말한다. 윤영철은 특히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서해교전 사건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한겨레는 조선, 동아, 서울 등과 뚜렷한 보도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런 시각은 국내 신문이 북한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성을 고려해 구성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수매체는 북한에 대해 보다 냉전적이고, 경직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진보매체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신문사들 간의 입장 차이는 신문사 안에서의 ‘의견 다양성’ 보다는 신문들 간의 ‘이념 다양성’으로 표출된다(윤영철, 1997).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보인다. 김경희와 노기영(2011)은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북한을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이질적인 집단으로 묘사했으며, 취재원도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다. 이에 반해 진보신문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북한체제를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취재원도 미국 관리나 미국 언론을 보다 많이 인용했다. 이진로(2003)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북핵 문제 사실분석을 통해 국내 신문의 보도방식을 밝혔는데, 보수매체인 조선일보는 반복정서에 기초하는 데 반해 한겨레는 민족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언론은 이미 자신들이 구축해 온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링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홍원(2001)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이후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성향을 분석한 결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프레임 설정한다고 주장한다. 이원섭(2008)은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 결과 국내 언론은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성격에 관계없이 자신의 색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보도의 편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이슈와 언론의 정서적 태도

전통 의제설정 연구자들은 신문에 있어 지면의 위치, 헤드라인의 크기, 기사 건수, 기사의 길이, 사진의 배치 등에 따라 의제나 대상의 현저성(salience)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미디어가 어떤 특정 이슈를 설정하며, 수용자가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1차 효과(first-level agenda setting effect)에 주로 주목해 왔다(McCombs & Ghanem, 2001; 윤태일 & 심재철, 2003). 일반적으로 어떤 이슈는 강조되고, 어떤 이슈는 가볍게 다뤄지며, 그리고 많은 경우는 약간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기도 한다(McCombs, 2004). 또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정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이슈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어떤 이슈를 부정적인 정서로, 또는 긍정적인 정서로 묘사하거나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서적 속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이슈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뤄졌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뤄졌는가 하는 다분히 감정적 또는 감정적 측면에서의 의견과 연관성이 높다(Hester & Gibson, 2003). 정서적 속성은 공중들의 평가기준이 ‘정보나 사실’(information & facts)보다는 ‘느낌이나 논조’(feeling & tone)와 더 밀접하다. 특히 정서적 속성은 이슈에 대한 평가와 관련돼 있으며, 주로 긍정적·부정적·중립적 등으로 조작적 정의가 이뤄진다(송용희, 2005). 결론적으로 정서적 속성은 미디어 보도로부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기령, 헤드라인에 함축된 표현은 독자(혹은 시청자)에게 사실 이상의 감정의 메시지를 준다(McCombs, Shaw, & Weaver, 1997). 그런 점에서 뉴스 미디어의 정서적 속성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바로 보도의 논조이다.

이러 하듯이 사람들이 사회 이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미디어가 강조하는 이슈나 대상 자체만이 아니다. 대상은 그 자체가 수많은 속성(attributes), 특성(characteristics) 그리고 특징(properties)을 지니며(McCombs, Llamas, Lopez-Escobar, & Rey, 1997), 이슈나 대상의 어떤 속성은 강조되지만 다른 속성은 덜 언급된다(McCombs, 2003). 때로는 어떤 속성은 아예 무시되기도 한다. 기령, 뉴스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보도할 대상이 선정(이슈)되기도 해야지만, 그 대상에 대해 무엇을(속성 혹은 특성), 어떻게 보도(논조)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되어야만 한다(민영, 2005). 어떤 대상이건 다양한 속성을 지니며, 미디어가 모든 속성을 다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도 규범상 논조 역시 모든 매체가 동일하길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특정 속성만을 강조하거나 정교화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거나 간략히 다룰 수밖에 없다(민영, 2005). 결과적으로 미디어가 두드러지게 강조한 이슈나 대상의 특정한 속성이나 특성이 어떤 관점(논조)에서 다루지는 지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McCombs, 2004). 이러한 현실 구성방식은 결국 그 사회 공동체의 이념적 가치로 굳어지고,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북한문제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언론의 보도태도는 훨씬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바뀌기 쉽다(이원섭, 2006). 많은 경우 북핵 이슈는 그 내용의 본질과 관계없이 한반도 안보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모든 언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보수 언론은 북핵 이슈를 부정적인 속성으로 다루고, 진보 언론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속성으로 다룬다는 주장도 있다(선경식, 2004).

3) 이슈 해석틀로서의 프레임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대부분 사회적 이슈는 일정한 구조적 틀을 통해 구현 된다.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성격규정은 결국 미디어가 설정하는 프레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프레임은 그 개념이 너무나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연구자마다 상이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송용희, 2005). 이런 이유 때문에 프레임은 복잡한 사회현실을 도시적으로 규정하고,

3)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그 사회가 처한 특정이슈의 상황적 모형이 구성된다(이준웅, 2009).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데 편리하지만 사회현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동시에 지닌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량분석이든, 아니면 텍스트 분석이든 일정한 틀을 동원하는 것은 다소간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프레임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강력한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An & Gower, 2009). 아울러 정치적 논쟁, 저널리스트 규범, 사회적 동원 담론을 보여주는 이슈 해석의 틀로서 기능을 한다(de Vreese, 2005).⁴⁾ 갬슨(Gamson, 1992)은 프레임 이론을 조직화 하면서 제안한 진단(diagnose), 평가(evaluate), 처방(prescribe) 개념을 사회 이슈를 해석하는 단계별 틀로 파악하였다. 즉 갬슨은 프레임을 사회현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갬슨이 제안한 프레임 개념은 다소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실제로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갬슨으로부터 프레임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엔트만(Entman, 1993)은 이를 발전시켜 위기에 대한 문제정의, 문제를 야기한 원인에 대한 진단, 문제를 야기한 행위 주체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전망(혹은 예측)을 가능케 하는 처방의 관점에서 프레임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구체화시켰다. 즉 엔트만은 미디어 보도의 내용분석을 시도하면서, 이슈의 규정(problem definition), 원인해석(causal interpret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해법제시(treatment recommendation)의 관점에서 사회적 현실을 설명하고자 했다. 엔트만이 주목한 이 프레임은 사회적 현실의 문제점(예: 위기 이슈)을 해석함에 있어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일관된 해석 구조를 제시해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아킬레스건인 북핵 이슈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고, 원인은 어디에서 찾으며, 어떤 해법으로 풀 것 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석틀로 응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집단 간, 매체 간의 갈등적 이슈로 지목되어 온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함의점, 이를 구성하는 기사 집단의 이념성, 개별 매체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원기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신문이 북핵문제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북핵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뉴스 영역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이념성이 다른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연구문제 1: 신문은 ‘북한 핵실험 문제’를 어떻게 성격 규정해 보도하는가, 그리고 신문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신문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논조와 속성으로 보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내 언론이 북핵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며, 특히 이념성이 다른 신문 간에

4) 갬슨과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프레임을 어떤 이슈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패키지로 정한다. 기틀린(Gitlin, 1980, p. 7)은 프레임은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사람들의 인지, 해석, 표상에 지속적인 패턴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연구문제 2: 신문은 ‘북한 핵실험 문제’를 어떤 정서적 태도로 제시하는가, 그리고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신문이 북핵문제의 파급효과와 원인, 해결을 어떤 요소에서 찾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념성이 다른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연구문제 3: 신문은 ‘북한 핵실험 문제’의 파급효과와 원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리고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네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신문이 북핵 문제의 장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념성이 다른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연구문제 4: 신문은 ‘북한 핵실험 문제’의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리고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범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터져 나온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해 국내 신문이 어떤 관점에서 의제구성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기간은 2차 핵실험 사실이 보도된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⁵⁾ 19일간에 걸쳐 북핵 관련 매체별 보도방식을 분석했다.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검색 사이트인 카인즈(KINDS)에서 ‘북핵’이라는 키워드로 사회, 국제, 경제, 종합, 사설, 종합 면 전체 지면의 모든 기사를 수집해 분석했다. 카인즈에 기사제공이 안 되는 조선일보는 같은 방법으로 자체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분석 기간 중 조선일보 51건(29.8%), 동아일보 51건(29.8%), 한겨레 26건(15.2%), 경향신문 43건(25.1%) 등 모두 1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보도한 기사 수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를 보도한 데 반해, 한겨레는 기사 수가 보수 신문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분석 항목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①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성격규정, ② 헤드라인에 기술된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⁶⁾, ③ 북핵문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매체별 보도입장, ④ 북핵문제의

5)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보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편이상 핵실험에 대한 첫 보도 시점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주요 원인에 대한 매체별 입장, ⑤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한 매체별 입장, ⑥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한 매체별 입장 등 모두 6가지로 구성했다. 각 항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수준은 수집한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홀스티(Holsti) 공식을 사용해 측정했다.⁷⁾ 각 항목별 신뢰도 수준은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성격규정은 0.89, 헤드라인에 기술된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 0.93, 북핵문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매체별 보도입장 0.84, 북핵문제의 주요 원인에 대한 매체별 입장 0.91,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한 매체별 입장 0.87,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한 매체별 입장 0.92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명확해 코더 간 의견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은 북핵문제에 대한 언론의 성격규정,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헤드라인 중심으로), 북핵문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매체별 입장, 북핵문제 원인에 대한 매체별 입장,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한 매체별 입장, 북핵문제 전망에 대한 매체별 입장 등 크게 여섯 가지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첫째 북핵문제에 대한 언론의 성격 규정은 많은 북핵문제 가운데 언론이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한 보도태도(헤드라인)는 언론이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논조로 강조해 보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매체별 입장(이하 본문내용 중심)은 북핵 사태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역에 파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넷째 북핵문제 원인에 대한 매체별 입장은 언론이 북핵문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 북핵문제 책임에 대한 매체별 입장은 언론인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북핵문제 전망에 대한 매체별 입장은 언론이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다.

5. 연구결과

1) 북핵 이슈의 성격규정(연구문제 1)

국내 신문들이 북핵문제를 어떻게 성격 규정해 보도했는지 분석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대북관계, 6자회담 등 남북한 간 정치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71.3%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제(남측에 대한 안보위협이나 사회불안)로 인식하는 보도가 18.7%, 주식, 투자, 경협축소, 소비감소 등 경제문

6)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를 헤드라인을 통해 분석한다. 기사의 헤드라인상에 나타난 보도태도를 살펴본 이유는 헤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그 이슈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보여주며,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Takahashi, Takahashi, & Tsuda, 2009).

7) 코더간 일치도 수준인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계수=2M/N1+N2로 M은 2명의 코더 간의 일치한 코딩수를 나타내고, N1은 코더 1인 코딩한 개수이고, N2는 코더 2가 코딩한 개수를 의미한다.

제로 취급한 기사가 9.9%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핵 관련 이슈에 대한 성격 규정은 신문마다 차이를 보였다. <표 1>에서 보듯이 동아일보는 북핵문제를 한반도 안보위협이나 남한 사회의 불안조성과 같은 사회문제(39.2%)로 규정한 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하지만 대북관계나 6자회담과 같은 남북한 정치문제로 규정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북한핵실험을 압도적으로 남북한 정치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패턴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북핵문제를 사회 안보위협과 연결 짓는 비율이 7.0%로 가장 낮았다. 한겨레 역시 북핵문제를 사회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5.4%로 낮았으며, 대신 투자전망이나 경제협력 등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보도비율이 15.4%로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5·25 핵실험’을 경제적 이슈로 인식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표 1> 북핵 실험에 대한 매체별 성격규정

	매체				합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사회문제 (안보위협, 사회불안)	9.8 (5)	39.2 (20)	15.4 (4)	7.0 (3)	18.7 (32)
남북문제 (대북관계, 6자회담등)	84.3 (43)	49.0 (25)	69.2 (18)	83.7 (36)	71.3 (122)
경제문제 (투자전망, 경협 및 소비감소 등)	5.9 (3)	11.8 (6)	15.4 (4)	9.3 (4)	9.9 (17)
합계	100 (51)	100 (51)	100 (26)	100 (43)	100 (171)

주) %, () 안은 기사 수

2) 북핵 실험기사의 보도 태도(연구문제 2)

신문의 헤드라인에 기술된 북핵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79.0%)이 강했다. ‘긍정적’인 것과 ‘매우 긍정적’ 입장의 기사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북핵문제 보도에 비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여러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기간에 도발적인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념적 정파성을 떠나 부정적인 프레임을 설정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헤드라인에 기술된 북핵문제에 대한 매체별 입장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2>에 나타난 대로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인 입장이 각각 84.4%, 82.8%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한겨레는 62.0%, 경향신문은 77.0%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함께 한겨레(15.0%)와 경향신문(11.0%)은 북핵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 조선일보(9.8%)와 동아일보(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 헤드라인에 기술된 북핵 실험에 대한 매체별 태도

	매체				합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우 부정적	37.3 (19)	22.0 (11)	10.0 (2)	16.0 (6)	24.0 (38)
부정적	47.1 (24)	60.8 (31)	52.0 (10)	61.0 (22)	55.0 (87)
중립적	9.8 (5)	4.0 (2)	15.0 (3)	11.0 (4)	8.0 (14)
긍정적	0.0 (0)	0.0 (0)	0.0 (0)	0.0 (0)	0.0 (0)
매우 긍정적	0.0 (0)	0.0 (0)	0.0 (0)	0.0 (0)	0.0 (0)
알 수 없음	5.9 (3)	12.0 (6)	21.0 (4)	11.0 (4)	10.0 (17)
합계	100 (51)	100 (50)	100 (19)	100 (36)	100 (156)

주) %, () 안은 기사 수

3) 북핵 파급효과에 대한 매체별 입장(연구문제 3)

북핵 문제가 국내외의 어떤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해 보도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비율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남한 내부에 대한 정치적 불안조성 31.5%, 경제적 피해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핵문제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과 국내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중첩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문에 기술된 북핵 문제가 국내외의 어떤 문제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시각은 매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는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보(70.6%)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반면, 한겨레는 남한의 정치적 불안조성(48.0%)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이런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매체의 성향과 관계없이 북핵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안보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북한 핵실험 이슈를 경제적 피해문제와 연결 지어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이 그간 북한 핵 문제를 주로 안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손실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왔던 과거의 보도관행과 차이가 있다.

<표 3> 본문에 기술된 북핵 실험 영향에 대한 매체별 입장

	매체				합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경제적 피해	5.9 (3)	10.0 (5)	12.0 (3)	7.1 (3)	8.3 (14)
남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불안조성	23.5 (12)	34.0 (17)	48.0 (12)	28.6 (12)	31.5 (53)
한반도 안보 불안	70.6 (36)	56.0 (28)	40.0 (10)	64.3 (27)	60.1 (101)
합계	100 (51)	100 (51)	100 (25)	100 (42)	100 (168)

주) %, () 안은 기사 수

4) 북핵문제의 원인 분석(연구문제 3)

북핵문제가 불거진 주요 원인에 대한 언급에서는 전체적으로 김정일의 장기독재와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북한 내부체제 모순이 부분적으로 언급(31.6%)됐거나, 강조되어 언급(20.6%)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안보의식 부재에 대한 언급(13.4%)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 부분은 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북핵 관련 주요원인에 대한 매체별 언급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표 4>에서 보듯이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주요원인을 북한체제의 모순에 귀인하는 반면에,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북핵문제가 남한 국내정치문제의 탓으로 귀인하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동아일보(25.4%)가 예외적으로 북핵문제를 남한사회의 안보의식 부재로 귀인해 평가했다는 점이 특이하다.⁸⁾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국제사회의 공조부재가 북핵 실험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33.4%로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보수신문은 북핵 실험의 원인을 북한내부에서 찾는 반면에 진보신문은 남한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쪽으로 의제구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사회의 안보의식 부재와 국제공조부재에 대해서도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서로 다른 의제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북핵 실험관련 주요 원인에 대한 매체별 입장

		언급 없음	부분적 언급	강조되어 언급	합계
조선일보		35.3 (18)	47.1 (24)	17.6 (9)	100 (51)
북한 체제 모순	동아일보	41.2 (21)	39.2 (20)	19.6 (10)	100 (51)
	한겨레신문	73.1 (19)	15.4 (4)	11.5 (3)	100 (26)
경향신문		55.8 (24)	13.0 (6)	30.2 (13)	100 (43)

8) 조선일보도 남한사회의 안보의식 부재가 북핵문제의 귀책으로 간주하는 비율(15.7%)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선일보	98.0 (50)	1.0 (1)	0.0 (0)	100 (51)
국내 정치 문제	동아일보	88.0 (45)	7.0 (4)	3.0 (2)	100 (51)
	한겨레신문	57.0 (15)	11.0 (3)	30.0 (8)	100 (26)
	경향신문	81.4 (35)	2.0 (1)	16.3 (7)	100 (43)
	조선일보	84.3 (43)	13.7 (7)	1.0 (1)	100 (51)
안보 의식 부재	동아일보	74.5 (38)	7.8 (4)	17.6 (9)	100 (51)
	한겨레신문	96.2 (25)	3.8 (1)	0.0 (0)	100 (26)
	경향신문	97.7 (42)	2.3 (1)	0.0 (0)	100 (43)
	조선일보	66.7 (34)	21.6 (11)	11.8 (6)	100 (51)
국제 공조 부재	동아일보	84.3 (43)	9.8 (5)	5.9 (3)	100 (51)
	한겨레신문	84.6 (23)	7.7 (2)	7.7 (2)	100 (26)
	경향신문	90.7 (39)	0.0 (0)	9.3 (4)	100 (43)

주) %, () 안은 기사 수

5) 북핵문제의 해결책 분석(연구문제 3)

북핵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대북제재(30.4%)와 국제공조(54.4%)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반면에 대북지원(0.6%)에 대해서는 매체의 성향과 관계없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안보의식 강화(11.7%)도 약간 언급은 되었으나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다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대북제재(41.1%)를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반면에, 동아일보는 안보의식 강화(21.6%),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제공조(각각 53.9%, 53.5%)를 해결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했다. 보수신문일수록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제재와 내부 안보강화에 맞춘 반면에 진보신문은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수매체와는 달리 한겨레(15.4%)와 경향신문(34.9%)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도했다. 진보 신문인 한겨레와 경향의 이런 보도규범은 핵협상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통 큰 지원’을 통해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또 개방시장으로 이끌어내자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북핵 실험관련 주요 문제 해결책에 대한 매체별 입장

		언급없음	부분적 언급	강조되어 언급	합계
대북 제재	조선일보	58.8 (30)	23.5 (12)	17.6 (9)	100 (51)
	동아일보	76.5 (39)	3.9 (2)	19.6 (10)	100 (51)
	한겨레신문	84.6 (22)	7.7 (2)	7.7 (2)	100 (26)
	경향신문	65.1 (28)	14.0 (6)	20.9 (9)	100 (43)
대북 지원 강화	조선일보	100.0 (51)	0.0 (0)	0.0 (0)	100 (51)
	동아일보	98.0 (50)	2.0 (1)	0.0 (0)	100 (51)
	한겨레신문	100.0 (26)	0.0 (0)	0.0 (0)	100 (26)
	경향신문	100.0 (43)	0.0 (0)	0.0 (0)	100 (43)
안보 의식 강화	조선일보	84.3 (43)	11.8 (6)	3.9 (2)	100 (51)
	동아일보	78.4 (40)	2.0 (1)	19.6 (10)	100 (51)
	한겨레신문	100.0 (26)	0.0 (0)	0.0 (0)	100 (26)
	경향신문	97.7 (42)	0.0 (0)	2.3 (1)	100 (43)
국제 공조	조선일보	35.3 (18)	39.2 (20)	25.5 (13)	100 (51)
	동아일보	54.9 (28)	11.8 (6)	33.3 (17)	100 (51)
	한겨레신문	46.2 (12)	7.7 (2)	46.2 (12)	100 (26)
	경향신문	46.5 (20)	9.3 (4)	44.2 (19)	100 (43)

주) %, () 안은 기사 수

6) 북핵문제의 전망 분석(연구문제 4)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북핵 관련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보도(73.7%)가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부정적인 전망(15.8%)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북핵 관련 이슈에 대한 매체별 전망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부정적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덜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북핵문제가 어느 한 시점에 종료되거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지속 가능한 위험 이슈’로 국내 신문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북핵 관련 이슈 전망에 대한 매체별 태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합계
언급하지 않음	49.0 (25)	82.4 (42)	84.6 (22)	86.0 (37)	73.7 (126)
매우 부정적	2.0 (1)	0.0 (0)	0.0 (0)	0.0 (0)	0.6 (1)
부정적	21.6 (11)	13.7 (7)	11.5 (3)	11.6 (5)	15.2 (26)
중립적	3.9 (2)	2.0 (1)	3.8 (1)	0.0 (0)	2.3 (4)
긍정적	3.9 (2)	0.0 (0)	0.0 (0)	0.0 (0)	2 (1.2)
매우 긍정적	0.0 (0)	0.0 (0)	0.0 (0)	0.0 (0)	0.0 (0)
긍정/부정적 혼재	19.6 (10)	2.0 (1)	0.0 (0)	2.3 (1)	7.0 (12)
합계	100 (51)	100 (51)	100 (26)	100 (43)	100 (171)

주) %, ()안은 기사 수

6. 결론 및 함의

‘5·25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도는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물고 올 안보위협과 국내정치적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핵문제의 결정구조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김정일의 장기독재와 세습체제 구축과 같은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폐쇄정책과 소통부재에 귀인(歸因)하는 상반된 보도태도를 보였다. 북한 핵의 원인에 대해 보수매체는 북한이 비합리적, 호전적, 군사대결적이라는 점을 들어 ‘북한 책임론’, ‘원죄론’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보수언론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평화를 깨는 불기착한 존재로 인식하는 ‘악당 프레임(rogue frame)’으로 구성한다. 이에 반해 진보매체는 북핵 실험은 북한의 대미협상 요구에 대한 미국의 무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북한의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화 등으로 북한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리면서 나온 불가피한 대응책의 시각으로 이해한다. 상황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지만 북한의 핵 집착에 대한 배경에는 북·미 간 상호불신과 미국의 압박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재와 안보강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포기를 전제로 핵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협상과 대화시도는 본질적으로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로 인식한다.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상이한 방식을 제시한다.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보수매체와 차별적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있어서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차이를 보인다. 보수신문은 한·미 공조 또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진보신문은 남북한을 포함해 미, 중, 러, 일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공조체제로 이해한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 매체 간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보수신문은 진보매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이는 보수적인 매체일수록 북핵문제를 비관적이며 해결 불가능한 쪽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진보매체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고 해결 가능한 쪽으로 이해한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신문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은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언론이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북핵문제를 대체로 부정적인 속성으로 보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북핵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고, 또 이념적 정파성에 따라 상이한 보도나 해석적 틀을 사용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과거 언론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안보나 국내정세와 연결 짓는 경향이 농후했으나 최근들어 이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연결 지어 보도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언론이 북핵문제가 안보상 위협과 직결된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방식에서 투자, 경험, 소비, 관광 등 경제적 요소에 더 비중을 두는 보다 현실적 접근방식으로 점차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언론이 같은 사안이라도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의제설정과 해석적 틀을 다르게 구성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의 의제구성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회공동체의 가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언론이 자사의 이념성에 따라 원인, 해결, 처방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발견이다. 지금까지 프레임 연구는 이슈에 대한 원인과 진단, 처방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을 뿐 언론의 이념성이라는 변수에 따라 프레임의 단계적 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국가 간, 문화 간의 차이에 따라 언론의 프레임이 다르다는 점은 제시되어 왔으나 정파성이나 이념성에 따라 이슈의 프레임이 어떻게 달리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진 편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프레임 연구는 이슈의 속성에 따라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를 살펴보는 데서 나아가, 이를 다루는 언론의 정파성이나 이념성에 따라 프레임의 시차별 구성에 있어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핵 이슈는 국내 언론에서 독립변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북핵 문제가 발생하고 남북한

관계와 남한의 국내 정치사회적 지형이 종속변수로 영향을 받는 모형으로 논의된다. 이런 도식적인 의제설정으로 인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언론의 현실구성이나 프레임 연구의 대부분은 정적인 분석을 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핵문제가 국제정치적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종속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언론이 북미 또는 남북 간 관계 변화나 교섭을 통해 북핵 이슈의 성격이나 특성이 전환될 가능성까지 의제설정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북핵문제의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핵문제라는 매우 복합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이슈를 국내 신문의 의제구성 특성을 통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한적인 함의점을 얻는데 그쳤다고 본다. 특히 5.25 핵실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미시적인 분석은 가능했지만, 북한 핵문제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은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런 점에서 북핵 이슈를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석 요소를 통해 다면적으로 해석, 논의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관련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은 그간 도식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구성이나 프레임 설정에 있어서 단편적, 일회적 분석에 치중해 왔다. 이런 결과로 북핵문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나 북한의 국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충분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북핵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적 요인(북미 또는 남북간 관계 변화나 교섭을 통해 북핵 문제의 성격이나 특성이 전환될 가능성)과 북한의 국내적 요인(북한이 북핵문제를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군사·외교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과학수준을 과시하는 과학기술적 차원으로 인식함)을 언론의 의제설정 분석 영역으로 포함시켜 북핵문제의 특성에 대한 동태적·구조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런 관점의 논의는 북핵문제에 대한 보다 통합적, 거시적, 체계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서 언론 보도가 갖는 도구(tool)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언론 보도 변화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북핵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의제설정과 프레임으로 나눠 분석하는데 치중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 자체에 대한 평가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북한 핵에 대한 평가는 사실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과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이 북한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를 성찰하고, 한국은 이를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이처럼 북한의 문제이자, 한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작업은 향후 북핵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순히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북핵 문제를 취재 보도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각 매체 구성원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이나 인식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Ⅰ 참고문헌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2~387.
- 김근식 (2011). 북한의 핵협상.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1호, 143~181.
- 김민웅 (2006. 10. 24). 북핵사태, 우리 언론은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
- 김영옥·임유진 (2009). 언론의 정부-언론관계와 언론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95~115.
- 권태선 (2008). 한일 보수신문의 북한 핵문제 보도 태도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핵실험 이후 <조선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의 사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언론 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고승우 (2009. 5. 25). 북핵실험 보도, 애도에서 위기 전환 겨냥했나? <http://www.mediatoday.co.kr>
- 류정민 (2009. 9. 16). 북한보도, 틀거리부터 바뀌어야. <http://www.mediatoday.co.kr>
- 민영 (2005/겨울호). 언론의 2차 의제설정 기능: 현실정의의 힘과 그 위험성. 『관훈저널』, 29~37.
- 반현·백강희·김수정 (2010). 한미 언론의 북핵위기 프레임 효과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17호, 123~168.
- 선경식 (2004). 소유구조에 따른 언론의 보도성향 연구: 조선일보·한겨레·노동일보 북핵 관련 사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 송용희 (2005).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프로그램/텍스트』, 제13호, 125~157.
- 엄상운 (2011).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 서울: 세종연구소
- 이우승 (2003, 10월). 북한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과 방송』, 68~70.
- 이우영 (2003/10월호). 북한 보도의 문제점과 대안: 분단의 언론에서 탈분단의 언론으로. 『방송문화』, 268, 10~13.
- 이원섭 (2008).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5호, 329~411.
- 이진로 (2003). 북한 관련 언론기사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북한핵문제 (1993-2003) 사실 분석. 2003년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 이준웅 (2009).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 개의 뿔. 『커뮤니케이션이론』, 5권 1호, 123~159.
- 이철기 (2005, 7월). 북한핵 실험설 보도의 문제점. 『신문과 방송』, 110~113.
- 윤영철 (1997).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언론: 남북한 신문의 보도시각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과 한국사회』. 나남, 121~152.
- 윤태일·심재철 (2003). 인터넷 웹사이트의 의제설정 효과.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195~215
- 윤호진 (2009, 7월). 북핵과 언론 보도: 초기에만 반짝 관심, 지속적인 추적 필요. 『신문과 방송』, 16~19.
- 정재철 (2009).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KBS와 MBC 북한문제 담당기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8호, 135~152.
- 한동섭·임중수 (2001). 미디어의 뉴스원 활용과 헤게모니 투쟁에 대한 고찰: 북한 보도에서의 뉴스원 분석을 중심으로. 2001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황지환 (2011).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1-1.
- 경향신문 (2009. 5. 26). 북한, 2차 핵실험.
- 연합뉴스 (2009. 9. 30). 박길연, 핵 포기할 수 없다. 강화할 것.
- 한겨레 (2011. 7. 6). 중 대북정책, 압박→생존지원. 북한 2차 핵실험 전후로 바뀌.

- Baek, K. (2007/August). *U.S. foreign policy and media framing: A content analysis of U.S. newspaper's coverage of the nuclear tests in Korea and Indi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U.S.
- Chung, M., Lessman, J. R., & Fan, M. (2008/May). *Framing the nuke: How news media in six-party talk countries framed North Korea's nuclear tes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Montreal, Canada
- Dai, J. & Hyun, K. (2010/September). Global risk, domestic framing: Coverag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by US, Chinese, and South Korean news agencie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3), 299~317.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ster, B., & Gibson, R. (2003). The economy and second-level agenda setting: A time-series analysis of economic news and public opinion about the econom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73~90.
- Lim, J., & Seo, H. (2009). Frame flow between government and the news media and its effects on the public: Framing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1(2), 204~223.
- McCombs, M. E. (2004). *Setting the agenda: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Cambridge, UK: Blackwell Polity Press.
- McCombs, M. E., & Ghanem, S.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In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ed. Stephen D. Reese, Oscar H. Gandy Jr., and August E. Gra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Combs, M. E., Llamas, J. P., Lopez-Escobar, E., & Rey, F. (1997). Candidate images in Spanish elections: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4), 703~717.
- McCombs, M. E., Shaw, D., & Weaver, D. (1997).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setting theory*. Mahw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o, H. (2008). International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 Study of journalists and news reports on the six-party nuclear talk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1), 1~17.
- Sigal, L. V. (2010). Primer-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Choeonan* attack.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6(5), 35~44.
- Takahashi, S., Takahashi, H., & Tsuda, K. (2009). Analysis of the effect of headline news in financial market through text categor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 in Technology*, 35(2-4), 204-20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Vreese, C. H. de. (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nformation Design Journal + Document Design*, 13(1), 51~62.
- Vreese, C. H. de., Peter, J., & Semetko, H. A. (2001). Framing politics at the launch of the euro: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frame in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07~122.

(투고일자: 2011. 8. 29, 수정일자: 2011. 10. 26, 게재확정일자: 2011. 11. 2)

ABSTRACT

The Media's Agenda Setting on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Wan Soo Lee* · Young Jun Son**

This study explored how South Korean newspapers covered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May of 2009. Findings show that South Korean newspapers mostly reported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 in relatively negative tones. Their coverage mainly focused on the influences of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 on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media's agenda settings and frames were not similar in terms of each paper's political and ideological inclination. Whereas the progressive papers, such as the *Hankyoreh* and the *Kyungbyang Shinmun*, recognized that the current nuclear issue in Korean peninsula is getting worse because of South Korea's rigorous pressure on North Korea, the conservative papers, such as the *Chosun Ilbo* and the *Donga Ilbo*, see that the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mainly comes from the system malfunction of North Korea. To prevent the current impasse, the left-side papers emphasized to develop the six-party talk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issue, while the right-wing papers paid attentions to the West'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

Keywords: Media Agenda Setting, Frame, Nuclear Test, North Korea, Progressive Papers, Conservative Papers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Visual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